



'골프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와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올해의 선수 자리를 놓고 정면 충돌한다.

둘은 20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휴스턴니안 골프장(파72·6천650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챔피언십에 나란히 출전한다. 상금왕과 신인왕을 확보한 신지애는 올해의 선수, 최저타수, 다승왕까지 5관왕 도전에 나서고 오초아 역시 상금왕은 놓쳤지만 4년 연속 올해의 선수와 최저타수 석권, 다승왕 등극 등을 놓칠 수 없으며 버리고 있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는 신지애가 156점으로 148점의 오초아를 8점 앞서 있다. 이 대회에 걸린 올해의

LPGA 챔피언십 20일 개막... 올해의 선수·최저타수·다승왕 싸고 한판 대결

선수 포인트는 우승 30점, 준우승 12점, 3위 9점. 따라서 신지애나 오초아는 우승을 차지하면 상대 선수 성적에 관계없이 올해의 선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산술적으로는 3위 크리스티 커(미국·127점)도 역전이 가능하다. 커가 우승하고 신지애가 10위 미만, 오초아는 4위 이하의 성적을 내면 올해의 선수가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올해의 선수상은 신지애와 오초아의 2파전인 셈이다. 신지애로서는 유리한 입장이다. 오초아가 4위 이하

신지애 VS 오초아

마지막 승부



로 떨어지면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해도 앉아서 올해의 선수상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신지애의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다. 오초아에게 우승을 뺏긴다면 올해의 선수는 물론 다승왕, 최저 타수 1위 등 3개의 타이틀을 모조리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승 부문에서도 신지애와 오초아가 나란히 3승씩을 올려 공동1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의 선수상은 1997년부터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카리 웹(호주), 오초아 등 세 명만 돌아가며 받아왔다. 신지애가 수상자가 되면 1987년 오카모토 야코(일본) 이후 두 번째로 이 상을 받는 아시아 선수가 된다. 최저타수는 현재 오초아가 70.22타로 1위에 올라 있다. 신지애는 70.267타로 2위, 커가 70.274타로 3위다. 최저타수는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이 쉽지 않지만 오초아가 이븐파 288타를 친다고 가정하면 70.309타가 된다. 이럴 경우 신지애는 4언더파 284타를 쳐야 역전이 가능하다.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어렵잖아 오초아보다 4타

를 덜 쳐야 전세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 16일 끝난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션을 보면 신지애가 오초아에 3타 앞서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신지애가 오초아를 4타차 이상 따돌리며 우승하는 것이다. 그러면 올해의 선수상, 최저타수 1위, 다승왕을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다.

한편 이 대회는 모두 120명이 출전해 2라운드까지 상위 70명만 3라운드에 나갈 수 있으며 최종 라운드에는 상위 30명만 추려내는 방식으로 열린다.

최나연(23·SK텔레콤)이 우승하면 3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로 시즌을 마치게 된다.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션에서 첫 우승의 기쁨을 누리 위성미(20·나이키골프)가 어떤 성적을 낼 지도 팬들의 관심사다. 연합뉴스

'한국 챔프' KIA 타이거즈가 체험한 日 선진야구

체계적인 교육에 기본기 탄탄
경기장 시설 선수 위주 맞춤형
대규모 주차장 갖춰 관중 배려

일본 챔피언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대결이 한국 챔피언 KIA 타이거즈에게 희망과 속제를 동시에 남겼다.

아쉬운 패배로 끝났지만 KIA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걸 경험하고 일본의 앞선 야구를 배울 수 있었다.

가장 큰 소득은 자신감이다. 낯선 땅에서 벌어진 호화군단 요미우리와의 대결, 주전 선수들의 이탈과 신종플루 악재까지 겹쳤지만 선수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4타수2안타1타점을 기록한 이현곤은 "처음에는 요미우리 선수들이 쉽게 생각하고 경기에 나섰던 것 같다. 꼭 이기고 싶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며 "아쉽게 졌지만 KIA의 지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체계적인 일본 야구는 선수들에게 좋은 공부라 됐다. 나홀로 3타점을 기록했던 나지완은 "상대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플레이를 눈여겨 봤다"며 "패배는 싫지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의 야구 인프라는 KIA는 물론 한국야구위원회(KBO), 광주시에 큰 속제를 안겨

줬다. 경기가 개최된 나가사키는 인구 45만 규모의 중소도시로 프로야구팀이 없지만 2만5천석 규모의 빅스타디움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아마팀이 사용하고 있는 이 경기장에서는 1년에 1~2차례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다. 최첨단 시설의 구장은 아니지만 이번 국제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좌·우 펜스 길이는 99m, 중앙 펜스까지는 122m. 외야 너머로 산이 둘러싸고 있어 전경도 뛰어나고 경기하기에 쾌적한 환경이다. 내부 시설도 사용자인 선수들 위주로 꼼꼼하게 마련됐다. 편의시설은 물론 노면전차가 바로 경기장을 지나고 지하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는 등 관람객들을 위한 배려도 세심하다.

선수들이 이동동선으로 "광주로 경기장을 들고 가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다. 광주시는 돛구장 건립을 위해 포스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어떤 모습, 어떤 운영방식이 될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선수와 팬이 중심이 되는 야구 인프라 구축은 KIA, KBO, 광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KIA는 체계적인 야구 기반 구축을 위해



KIA와 요미우리와의 한·일클럽챔피언십이 열린 나가사키 빅스타디움은 2만5천석규모의 경기장으로 선수들과 관람객들을 위한 시설이 꼼꼼하게 배치되어 있고, 관리도 철저하다. 현재 나가사키 세인츠라는 일본의 아마추어팀이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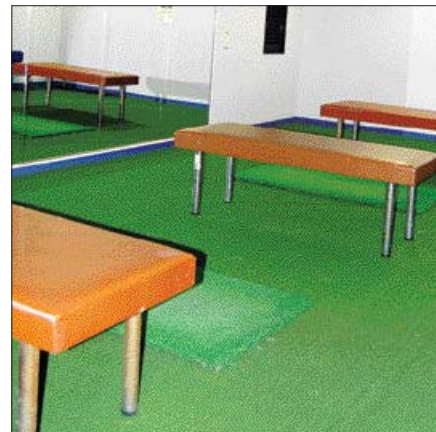


경기장 안쪽에 마련된 실내 볼펜.

프로야구 최다우승 팀 명성에 걸맞은 전용 훈련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평 야구장을 임대 사용했던 KIA는 올 시즌 우승을 통해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광주에는 마땅한 보조경기장과 연습장이 없어 그동안 2군 선수들은 1군 선수들에게 무등경기장을 내줬다. 1군 선수단이 원정을 가더라도 아마팀과 생활체육팀의 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함평으로 가서 경기와 훈련을 해야 했다.

현재 KIA는 전용 훈련장이 들어설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동거리를 고려해 광주 인근 지역에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야구장, 보조구장 및 기숙사 등을 갖춘 전용 훈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예상부지 면적만 5만㎡



경기중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약 1만5천평), 비용만해도 100억원이 넘게 투입될 예정이다.

김조호 단장은 "전용훈련장 시설이 열악해 선수단의 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 팀 전력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공까지는 1년에서 1년반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피겨여신
김연아
솔직 인터뷰



"대부분 경기 모습만 보시고 '매일 매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번 프리스케이팅 연기처럼 연습에서 오라카락할 때가 잦아요"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 1980링크에서 치러진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김연아(19·고려대)는 7개 점프 과제 가운데 3개의 점프를 실수했다. 그랑프리 시리즈 7개 대회 연속 우승에 성공한 김연아와 '솔직·담백'한 인터뷰를 나눴다.

"첫 점프 말아먹고 당황
경기 내내 다리가 후들"

▲"예비주사 제대로 맞은 거죠"=이번 그랑프리 5차 대회를 앞둔 김연아의 심정은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김연아는 "솔직히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던) 지난 1차 대회보다 못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컨디션도 그때만큼 못했고 시즌 첫 대회부터 매우 잘해서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는 걱정과 불안감이 있었어요"라고 속마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 "프리스케이팅을 망쳤던 게 언제였더라...요...하여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때 이후로 이렇게 점프를 '말아먹은 적'이 오랜만이에요 당황스러웠지요. 첫 번째 점프부터 잘못되더니 끝날 때까지 긴장돼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어요"라고 털어놨다.

▲"강심장?" "저도 긴장을 많이 해요"=이번 그랑프리 5차 대회를 준비하면서 김연아는 유난히 트리플 플립 점프에 민감했다. 트리플 플립 점프는 그동안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첫 과제의 콤비네이션 점프로 했지만 지난 시즌 어텐션(에지 사용주의)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시즌부터 단독 점프로 돌렸다. 하지만 지난 1차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점프 직전 스케이팅 날에 얼음이 걸리면서 포기했고, 이번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하지만 두 대회 모두 쇼트프로그램에선 가산점까지 챙기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다이어트?" "잘 때쯤 꼭 배가 고파요"=김연아의 키는 164cm에 몸무게는 47~48kg 사이로 체지방이 10%대에 불과한 날씬한 몸매다. 김연아는 "적게 먹는 것 같지만 과일에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배가 금세 불러요. 운동량이 많다 보니 연습하고 집에 가면 배가 고파요"라며 "잘 때 불쌍한 식단은 아니랍니다. 주변에서 가끔 '김연아가 제대로 못 먹어서 안쓰러워'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솔직히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요. 꼭 잘 때 좀 배가 고파요"라며 살짝 웃었다. 연합뉴스

연아, 세계 랭킹 2위로

김연아(19·고려대)가 한 달 만에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여자싱글 랭킹 1위 자리를 내줬다. ISU가 1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여자싱글 세계 랭킹에 따르면 김연아는 랭킹포인트 3천960점으로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4천111점)에 151점 뒤처져 2위로 떨어졌다. 지난달 19일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우승으로 랭킹 포인트 400점을 획득해 코스트너를 제치고 1위에 오른지 29일 만이다. 연합뉴스



"희석이와 산행... 몸과 마음 재정비"

요미우리 이승엽 귀국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비장함이 가득했다.

일본에서 2년 연속 부진했던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승엽은 17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귀국 인터뷰를 갖고 "나에게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다"며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국 소감은. ▲9개월 반 만에 귀국했다. 올해는 좋았던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많았다. 이제는 시즌이 끝난 이상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다.

-무척 힘든 시즌을 보냈다. ▲2군 생활도 오래했고 30타석 이상 안타를 못 치기도 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버하기도 했다. 자동차로 치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셈이다. 8번 타자, 대주자, 대수비까지 해 봤다. 그런 경험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

-일본 활동에서 위기감을 느꼈나. ▲이미 지금 위기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즌 초반 자리를 잡지 못하면 1년 동안 계속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다. 이번 겨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다. 내가 이겨낼 수밖에 없다.

-올해가 끝나면 다른 길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요미우리와의 계약이 내년이 끝이다. 지난 2년간 부진했고 내년 시즌에도 부진하면 잘릴 수밖에 없다. 용병 신분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성적이 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겨울 훈련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 ▲지난 2년 동안 성적이 부진했던 만큼 올해는 기술과 웨이트트레이닝을 병행할 것이다.

-최희섭과 함께 훈련하게 된 계기는. ▲희섭이 산을 타면서 몸과 마음이 안정됐다고 했다. 나도 조금씩 산을 타기는 했지만 재미를 느낀 것은 아니었다. 마음과 몸이 지친 상태니 산에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 마음으로 시작할 것이다. 훈련 내용과 장소는 희섭에게 맡길 것이다. 연합뉴스

